

무제, 텐슬리스, 항해(2003-2009)

박형근

길을 잃었다.

언제나처럼 머릿속을 가득 메운 오염물질들을 털어내기 위해선 그 곳에 가야만 했다. 분주한 도심을 벗어나 사람들의 무리가 시야에서 가려질 때 쯤이면 나는 그곳에 누워 흔들리는 나뭇잎들의 부정형적 유혹을 마주하게 된다. 숲은 깊고 나무들은 늙었다. 간혹 들리던 새소리도 적막에 덮히는 그 순간,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숲의 장막을 조심스레 열어젖힌다.

언젠가 사람들이 자연의 신으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양식과 경험들을 모두 다 소진하고, 마침내 이것들을 관심 밖으로 몰아냈을 때 그들은 하나 둘씩 이비밀스런 문 너머의 세계속으로 자신들을 감추었다. 내가 이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된 일 또한 참 우연스럽다. 밤과 낮이 마주하는 순간은 하루에 두 번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변화의 시간안에선 거대한 우주의 영역도 그리고 먼지처럼 작은 나의 존재도 무의미하다. 미끌어지듯 나를 놓아버릴 수 있었던 그 한번의 일은 사실, 거짓에 가까운 착각에서 비롯되었다. 몽환적인 그림속을 걷고 있었던 어느날 해는 지지않고 달은 희미하지 않았다. 별은 호숫가에 맺혀있었고 집들은 불을 밝히지도 않은 채 어둠에서 빛난다. 가끔 마주하는 이 경험은 왠지 사실같지가 않다.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이다.

오늘따라 이곳은 더욱 이상하다. 괴기스럽고 불편하다. 잠깐의 망설임을 뒤로한채, 동시에 나를 엄습하는 불안감과 호기심에 기대어 발을 들여놓았다. 이내 눈은 멀고 머리속은 멍해진다. 이곳에 들어올때면 늘상 있는 일이기에 잠시 기다리기로 한다. 이 세계에서는 예측과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각의 측수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한다. 어쩌면 차라리 듣지않고 보지않는 편이 훨씬 편하다. 그래야만 나를 바라보는 나와 만나게 된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곳은 예전에 왔었던 곳임에 분명하다. 거칠지 않은 바람의 속삭임, 정적인 나무들의 동물적 움직임,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초록 늪의 유혹 등, 오래된 세계의 흔적들이 낙엽쌓이듯 겹쳐져 있어서 걸을 보는 일은 아무것도 보지않는 일이 되고야 만다. 누적된 세계의 층위들을 한 꺼풀씩 들추어 내는 일은 복잡한 미로 안에서 나침반 바늘이 지시하는 곳으로부터 벗어나는 일 만큼 어렵다.

이곳은 그래서 사진으로 담아내기에 무척 어려운 곳이다. 보지않고 생각을 멈출 때야 비로소 더 많이 볼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지금보다 훨씬 어렸던 그때가 차라리 더 나았을지 모른다. 알수 없는 무엇을 보기 시작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알 수 없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지난한 여행을 이제서야 하고 있는 것이다.